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 대진표 확정

# 광일리그, 메리츠화재 vs 샤크스 무등리그, 에어패스 vs 순한방병원

### 29일 우승 놓고 마지막 승부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우승을 다룬 결승 대진이 확정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준결승전이 22일 영광 대마산단야구장에서 열렸다.

광일리그에서는 메리츠화재보험과 샤크스가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무등리그 4강 대결에서는 에어패스 파죽지세와 순한방병원 포비스가 승자가 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메리츠화재는 그린라인을 상대로 8-5 역전승을 장식했다.

1회초 1점을 뽑아낸 메리츠화재가 이어진 수비에서 1-3 역전을 허용했다. 2회 추가 득점에 실패한 메리츠화재가 2실점을 하면서 1-5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하지만 3회 1점을 추격한 메리츠화재는 4회 대거 6점을 뽑아내면서 역전극을 펼쳤다.

불펜 투수로 나선 조정주가 2이닝 1실점으로 허리 싸움을 해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타석에서는 6번 타자 정재윤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했다.

샤크스는 시원병원 테라를 11-9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1회부터 5점을 뽑아낸 샤크스는 시원병원에 바로 4실점은 했지만, 2회 5점을 만드는 폭발력을 보여줬다. 시원병원이 3회 5점을 뽑아내면서 반격을

했지만 샤크스는 4회 1점을 보태면서 승리를 기록했다.

마무리로 나선 김병록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다. 4번 타자 박종재는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3타석에서 모두 볼넷을 끌러내면서 2득점에 성공했다.

‘무등기 개근생’ 에어패스 파죽지세는 정일자동문을 16-5로 꺾고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0-2로 뒤진 3회 에어패스가 7점을 뽑아내는 등 ‘빅이닝’을 만들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4회에도 6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고, 5회에도 3점을 보태면서 뒷심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선발 이영후에 이어 등판한 최대환이 1.2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고, 9번 김종관은 4타석에서 안타 하나와 3개의 사사구를 기록하는 등 100%출루에 성공하면서 2득점을 만들었다.

순한방병원 포비스는 자연환경을 14-3으로 누르고 결승행을 확정했다.

1회부터 6점을 뽑아내면서 기싸움에 앞선 순한방병원은 8-2로 앞선 5회 6점을 보태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5-6번에 선 김현호와 김창집이 나란히 3안타 행진을 펼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선발로 나선 양하성은 4이닝을 2실점으로 보태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한편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우승팀은 29일

가려진다.

오전 10시 메리츠화재보험과 샤크스가 광일리그 우승을 다투고, 오후 1시에는 에어패스 파죽지세와 순한방병원 포비스의 무등리그 결승전이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준결승 전적(22일)

◇광일리그 4강전

◆1경기  
메리츠화재 10 16 - 8  
그린라인 3 200 - 5

▲승리투수 : 조성주  
◆2경기  
샤크스 5 5 0 1 - 11  
시원병원 테라 4 0 5 0 - 9  
▲승리투수 : 김경수

◇무등리그 4강전

◆1경기  
에어패스 0 0 7 6 3 - 16  
정일자동문 1 1 3 0 0 - 5

▲승리투수 : 이영후  
◆2경기  
순한방병원 6 0 0 2 6 - 14  
자연환경 10 1 0 1 - 3  
▲승리투수 : 양하성



22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준결승 파죽지세와 정일자동문과의 경기. 4회초 2사에서 에어패스 파죽지세 신문철이 김종관의 중전안타 때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팀 심재용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이 지난 18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끝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금메달 7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 전국 최강 우뚝... ‘육상 명가’ 자존심 되찾은 광주시청

### 전국체전 금 7·은 1·동 1개 고승환 등 다관왕 5명 배출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 최강으로 우뚝섰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19일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휩쓸며 ‘육상 명가’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올해 광주시청에 등지를 튼 고승환(26)을 비롯 다관왕 5명을 배출했고, ‘허들 여왕’ 정혜림(36)의 8연패 등 다연패 2개와 대회신기록 2개도 작성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육상 일반부에서 10여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2015년 96회 강원체전 금

6·은 2·동 2개, 2016년 97회 충남체전 금 7·은 1·동 3개, 2017년 98회 충북체전 금 7·은 2·동 1개, 2018년 99회 전북체전 금 4·은 5·동 2개, 2019년 100회 서울체전 금 6·은 3·동 3개를 따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개최된 2020년 101회 대회와 고등부만 열린 2021년 102회 경북체전에 출전하지 않은 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해 울산체전에서 부상과 실적 등의 악재로 금 2개와 은 1개에 그치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러한 성과는 구겨진 자존심에 절치부심하며 시즌을 준비했기에 이뤄졌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과 협업해 선수들의 전문 훈련과 피로 회복, 재활, 부상 후 복귀훈련 등을 진행하며 부상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력 보강도 이뤄졌다. 국가대표 김태호(30)와 고승환을 영입해 가장 빠른 단거리 육상팀 진용을 갖췄다.

여기에 ‘한국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 김국영(32)이 말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의기투합에 나서는 등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심재용 감독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수들을 포용하고 다독겨왔다.

그 결과 이번 전국체전에서 다시 전국 최강팀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심재용 감독은 “내년에 한국체대를 졸업하는 이재성이 합류한다. 100m는 물론 계주에서도 한국신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여섯번째 장애인아시아게임 탁구 출전 광주시청 김영건 “여전히 목표는 금메달”

### “매 경기마다 최선 다할 것”

장애인 탁구 강판 김영건(스포츠등급 Class4·광주시청·사진)은 여섯 번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영건은 22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탁구 남자 단식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인도의 차우드하리 자쉬 반트 달상브하이를 3-1(11-3 11-8 11-13 11-5)로 가볍게 눌렀다.

김영건은 2002년 부산 대회 때부터 출품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석 도장을 찍으며 한국 선수단 중 가장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다.

어느덧 여섯 번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나선 김영건은 긴장감과 익숙함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김영건은 이날 1, 2세트를 가볍게 잡아냈지만 3세트에서는 상대의 거센 반격에 흐름을 내줬다.

김영건은 “예선이라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잘하더라”라고 첫 경기를 치른 소감을 전한 뒤 “상대 선수가 3세트에서는 코스도 더 좋고, 볼도 잘 넣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4세트에서는 내 플레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시아게임에 오고 있는데, 매년 긴장되는 건 똑같지만, 비슷한 상황을 많이 느껴봐서 어느 정도는 익숙하기도 하고 마음가짐이 편하기도 한 것 같다”며 “경기 생각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건은 그간 다섯 차례 장애인아시아경기대



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4개를 수확해 비장애인-장애인 선수를 막론하고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을 갖고 있다. 김영건은 앞선 다섯 차례 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4개를 수확했다.

당연히 이번 대회 목표는 8번째 금메달이다.

김영건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김정길(광주광역시청)과 복식에서도 환상의 호흡으로 금메달을 합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30일
2관	블루 자이언트
3관	익스펜더블 4,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4관	엑소시스트: 믿는 자
5관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비, 더 년 2
6관	30일
9관	플라워 킬링 문, 세이 예스 어게인
7관	씨네커플 화란
8관	씨네커플 화란, 1947 보스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상설공연**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3-10-01(일)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일시 : 2023-11-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30일